

나의 독서일기 1\_

# 비무장지대에서 책읽기



‘군대 좋아졌다’는 무의미한 상투어(常套語)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적어도 독서여건만큼은 내가 군복무 하던 시절(1988년 여름~1990년 가을)에 비하면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 문화방송 오락정보프로그램 <!느낌표>의 독서 캠페인에 소개된 최전방 사단과 해병부대를 통해 군대 내무반 분위기가 책읽기에 꽤 관대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진중문고’가 환골탈태하였다. 예전의 진중문고는 시중 문고본을 표지같이만 했을 뿐이었다.

진중문고란 국방부에서 1년에 네다섯 종의 책을 선정, 구입해서 군대내 도서관과 내무반에 비치하는 도서다. 종당 1만부 정도를 구입하는데, 대개 가벼운 책들이 선정되게 마

련이어서 딱딱한 인문·사회과학서에는 차례가 잘 안 돌아오는 모양이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도서출판 그린비의 『화폐, 마법의 사중주』가 진중문고로 선정되었다.

“요즘 군대, 정말 좋아졌다. 이 책은 자본주의하에서 화폐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신(神)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계보학적 방법으로 추적한, 심하게 말하면 반(反)자본주의적인 성격의 책이다. 설마 책 제목에 화폐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부자학 관련서나 재테크 서적으로 착각해서 잘못 선정한 건 아닐까? 세상만사, 편견이 깊으면 늘 이렇게 뼈다귀하게 보는 법이다. 어쨌거나 올해부터 국방부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책 400종을 선정해서 600부 정도씩을 사준다고 하니, 인문출판하는 나로서는 출판할 맛이 난다.”(유재건, 『인문학, 인문서 출판에 대한 단상』, <출판저널> 2006년 9월호)



**최 성 일**

출판평론가

robli@freechal.com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나는 군복무를 하면서 책을 제법 많이 읽었다. 구체적인 장소는 기억나지 않지만 마광수 교수의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자유문화사, 1989)를 처음 접한 곳도 군 내무반이었다. 또 무슨 이유에선가 몰라도 당시에는 이 책의 3분의 1밖에 못 읽었다. 제대 후 한참 지나 책을 사서 완독했다. 마 교수의 첫 에세이집은, “89년에



‘야한 여자가 좋다’라는 책을 냈을 때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요즘 ‘야하다’는 말은 칭찬이지 않느냐”(《경향신문》 2006년 11월 27일자)는 그의 결과론과 학교 측의 몰이해와는 상관없이 애초에 야하지 않았다. 책 제목이 파격적이었지.

군인 신분인 나의 책읽기는 대부분 비무장지대(DMZ) 안의 GP(Guard Post, 감시초소·경계초소)에서 이뤄졌다. ‘전초(前哨)’라고도 하는, 외부와 격리된 GP는 독서를 위한 최적의 공간이다. 이제 갓 상병 계급장을 달았기에 ‘짬밥’이 모자라 자대였다면 책을 펼칠 엄두를 못 냈겠지만, 파견병이었던 나는 선임병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남는 시간에 얼마든지 책을 볼 수 있었다. 간략하나마 GP에서의 일상을 기록한 군인수첩을 지금까지 잃지 않아 이 글을 쓰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

“9월 21일 : 이곳에서의 첫 아침을 맞았다. 안개가 짙게 끼었다가 걷혔다. 어제 있었던 일을 적기로 한다. 오는 길에 ○○OP(Observation Post, 관측소)에서 ○○을 보았다. 두 달 만에 만났는데 약간 수척해 보이기는 해도 건강한

모습이다. 통문을 통과했다. 지나다니는 차가 많다. 공사중이라 그리는 모양이다. 네 시쯤에 도착. 공사가 한창 마무리 중이다. 시끌 법석, 어수선하다. 차에 실려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피곤해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저녁을 먹고 결산시간에 내 소개를 했다. 모든 이들이 따듯하게 맞아주었다. 관망대에서 망원경으로 북녘 땅을 보았다. 버스가 있었다. 신병교육대도 살폈

다.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GP 내무반에 있을만한 책이 꽤 있다. 여기저기서 작업병들이 누워 잔다. ○○○GP, 이 곳은 하나의 성(城)이다. 내가 삼 개월 여 동안 지낼 곳. 잘 지내보자.”

GP투입 사흘째에도 DMZ 안에 있다는 불안감이 아직 가시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튿날 있을 사단장의 방문에 앞선 부사단장의 내방으로 숨어 다니다. 아마도 GP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던 듯하다. 지나고 보니 GP처럼 평화로운 곳도 드물다. 다음은 비무장지대의 소묘다. “따스한 오후의 햇볕을 받고 있다. GOP(General out Post, 일반초소) 철책의 고가초소(주간 감시를 위한)가 덩그러니 무척 한가롭다. DMZ의 산야는 황량한 겨울의 시위. 철책 기둥에 앉은 까마귀. 측면으로 이어진 등지 넷, 다섯, 여섯. OP에서 들리는 노래 소리. <사노라면>. 참 재미있는 일이다.”(11월 23일) 전인권의 찢어지는 목소리가 아늑한 정경과 묘하게 잘 어울렸다. 그런데 당시 대북방송의 인기가 수는 사회와 마찬가지로 변진섭이었다. 그의 <새들처럼>은 군사분계선을 자유롭게 넘나들



었다. GOP 철책은 남방한계선으로 보면 된다.

### GP투입 초기에 읽은 소설 세 권

우연찮게 GP투입 초기 잘 나가는 대중소설 세 권을 연이어 읽었다. 젊은 혈기 때문인지 독후감이 꽤나 까탈스럽다.

“9월 25일 : 이틀에 걸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를 읽다. 50만부나 팔렸다는

이 책. 가는 곳마다 눈에 띄어 읽기 시작. 밖에 있었으면 읽지 않았을 것이다. 이 하찮은 이야기가 왜 그렇게 널리 읽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두 주인공의 소비적이고 파탄적인 사랑이 동경의 대상이 되겠지. 사회의식의 결여에서 오는 무서운 현상. 작가의 존재와 의식을 반영한 작품이다. 그는 이런 식으로 밖에 쓸 수 없다. 군에서 책을 읽을 시간을 갖는 기회가 마련되어 기쁘다.

9월30일 - 대만 작가 경요의 『너의 흔적 너의 의미(彩雲飛)』 다 읽다. 평이한 문체라 쉽게 읽었다. 현실감이 결여된 이야기다. 『헬로우 미미』 다 읽다. 내 인내력도 상당하다. 이 지루한 이야기를 끝까지 읽었으므로, 소설이란 이름에 걸맞게 플롯이 있고 과감한 취사선택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 기구한 여인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책임 회피. 외세가 구세주로 등장하는 비극.”

### 시와 시집 읽기

“10월 3일 : 시를 몇 편 얻었다. 송수권의



「작은 불빛」이 가장 마음에 든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음인지 아니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인지 좋은 시들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얼마나 귀하고 귀한 시들인가.” (그래서일까 신경림의 「농무」는 지금 봐도 아주 정성스럽게 베껴 적었다.)

### 괴로운 자의 불빛은 이렇게 잠들지 못하는구나

어디에서나 깨어있으므로  
저 창가의 작은 불빛 하나는  
이렇게 아름답구나  
오늘 더욱 어둠이 깊었으므로  
살생의 칼을 쥔 자여  
저 언덕반이 어둠속에 뜬  
작은 불빛 하나를 지켜보라  
그대의 양심을 찌르는 가장  
정직한 한 사람이  
백지위에 칼 대신 붓으로  
말을 달리는구나  
한 장의 백지위에서 타는 불꽃  
펼럭이는 순수의 불송이  
어떠한 물로도 저 작은 불빛은  
꺼버릴 수 없구나 (송수권, 「작은 불빛」전문)

“10월 28일 : 유명한 『홀로서기』를 읽다. 문학의 대중화와 대중문학은 한번 써볼만한 주제다. 80년대 후반기 한국문학의 한 특징은 시와 수필의 수요확대이다. 정확히 말하면, 독서계의 뚜렷한 특징이다.”

## 책의 출처와 유형

책의 출처는 크게 셋으로 짐작된다. 진중문고와 위문품, 그리고 GP 주둔 소대원의 책이다. 둘도 없는 문학평론집이어서 열심히 읽은 구중서 선생의 『분단시대의 문학』(전예원)은 위문품으로 답지한 것이거나 GP에 투입된 부대원이 휴가를 다녀오면서 가져온 것이리라. 내가 이 책을 독파할 무렵 그 부대원은 이미 전역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책은 부대에 남아 GP까지 흘러 들어온 건지도 모를 일이다.

또 GP에는 대중 본위의 책이 많았다. 출판장르는 문학의 비중이 높았다. 채만식의 『탁류』는 그렇다 해도 강경애의 『인간문제』를 비무장지대에서 읽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 하지만 강경애의 장편소설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군인이 읽어선 안 된다는 말인가. 내가 지레 겁을 먹은 셈이었다. 밀란 쿤데라의 『농담』에서는 이런 대목을 옮겨 적었다.

“소설가는 독자로서 하여금 세상을 하나의 질문으로 파악하도록 가르친다. 이러한 태도에는 지혜와 관용이 있다. 신성불가침의 확신들 위에 건설된 세계는 죽음의 세계다 전체주의 세계는, 그것이 마르크스주의, 이슬람교 혹은 어떠한 것에 기초를 두고 있던, 질문들의 세계라기보다는 대답들의 세계이고, 거기에는 소설이 설 자리가 없다. 하여간 나에게는 오늘날 온 세계 도처에서 사람들이 이해보다는 심판을, 질문보다는 대답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며, 그러하여 소설의 소리는 인간의 확신들의 소란스러운 어



리석음에 가려 거의 들을 수가 없다.”

생텍쥐페리의 『전시조종사』에선 아래 두 구절이 인상적이었나 보다.

“이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이고, 습관에 따라 그 쓰임새를 되찾고 추억으로 인해 아름다운 빛을 내는데, 이 모든 조건이 합쳐서 이루어놓은 마음의 고향 때문에 이것들은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 내 불행을 숙명의 탓으로 돌리면, 나는 숙명에 굴복하는 것이 된다. 나의 불행을 배반의 탓으로 돌리면 배반에 굴복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잘못을 내가 책임지면 나는 사람으로서 나의 능력을 주장하는 것이 된다.”

인문사회 분야의 어려운 책도 더러 있었다. “문학예술은 기본적으로 자유와, 양심과, 미래에의 아름다움의 추구이므로 거기에는 정직과 진실이 동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분단시대의 문학』) 군인수첩에 기록한 날짜를 봤을 때 “역사의식 ①역사적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②역사적 변화의 법칙에 대한 인식 ③대중의 역사창조 능력에 대한 각성”이라는 메모 또한 『분단시대의 문학』에서 따온 것 같다.

## 국토분단의 생생한 현장

비무장지대에는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돈다. GP에서 분단의 아픔을 절감한 경우가 두 번 있다. 한번은 지구 저편에서 날아온 뉴스가 그런 감회를 불러왔다.

“11월 13일 :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소식. 그러나 나는 견고한 DMZ 안에 있다. 조국산하를 동에서 서로 가른 양쪽의 철책선. 이 땅이 하나 되는 날 단단히 붙박여 있는 쇠기둥을 뽑으러 여기에 다시 오리. 하지만 그러기 전에는 이 곳에 오지 않으리.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날, 갑자기 기온은 떨어지고 횡한 보름달빛은 차갑기만 하다.”



나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실제로 겪기도 했다. 어느 날, ○○○GP 가까운 곳으로 긴박한 상황이 생겼고, 화들짝 놀란 나는 이 사실을 사단 상황실에 보고했다. 그 후 며칠간 비상근무를 썼다. 자대에 복귀하고 나서 돌발 상황에 대처를 잘 했다고 사단장 표창을 받았다.

### GP에서 읽은 책 목록

-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이문열, 자유문학사)
- 너의 흔적 너의 의미(瓊瑤, 홍익출판사)
- 헬로우 미미(임선영, 장원)
- 헤어짐으로 만나는 사람들(한수산 외, 청조사)
- 분단시대의 문학(구중서, 전예원)
- 홀로서기(서정윤, 청하)
- 사랑의 에세이(피천득 외, 율곡문화사)
- 밤에 쓴 인생론(박목월, 삼중당)
- 하늘의 다리(최인훈, 고려원)
- A. 체흠 걸작선(체흠, 명성출판사)
- 新往五天竺國傳(문순태, 한국방송사업단)

- 한국사회의 규범문화(배용광 · 변시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웃음의 한국학(이규태, 기린원)
- 갯마을(오영수, 글방문고)
- 아메리카(조해일, 고려원)
- 생의 한가운데(루이제 린저, 글방문고)
- 젊은이와의 대화(앙드레 모로와, 박영사)
- 세계민화선(이일철 역편, 정음사)
- 한국 민속의 뿌리(김양기, 조선일보사)
- 우리가 산다는 것은(헤르만 헤세, 지문사)
- 공포의 외인구단(이장호, 오늘)
- 누가 생의 길을 묻는다면(김형석 외, 민중서각)

- 우리를 영원케 하는 것은(유안진, 현대문학사)
- 역사의 교훈(토인비, 정음사)
- 을지문덕(신채호, 정음사)
- 濁流(채만식, 청화)
- 한국전통사회의 관혼상제(장수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깊은 밤 깊은 곳에(시드니 쉘던, 황성문화원)
- 농담(밀란 쿤데라, 지학사)
- 전시조종사 · 어린왕자(생텍쥐페리, 마당문고)
- 세계음악의 현장을 찾아서(강석희, 고려원)
- 소유냐 삶이냐(에리히 프롬, 홍성사)
- 한국의 신화(김태곤 편저, 시인사)
- 인간문제 외(강경애, 동서문화사)
- 한 자루 촛불 밝음이 다할 때까지(앙드레 지드 외, 금문당) (주)

